



2012년 12월 17일(월)

□ 미국 경제 동향

- 1) 뉴욕제조업지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세 지속
- 2) WSJ, 내년 미국 경제 회복되지만 약한 성장 전망
- 3)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내년 미국 경제 2.1% 전망

□ 해외 경제 동향

- 1) 모건스탠리,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적
- 2) EU-싱가포르 FTA 타결, 영국 금융업 진출 기대

□ 산업·시장 동향

- 1) 인도계 IT 아웃소싱 기업들, 미국 시장 공략
- 2) 美소매 유통기업들, 트위터를 통한 마케팅 전략 강화

□ 미국 경제 동향

1) 뉴욕제조업지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세 지속

- 지난 12월17일(현지시간) 뉴욕 연준(FRB)은 12월중 뉴욕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스태이트지수가 -8.10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지난 11월의 -5.22는 물론, 전문가 예상치 1.0을 크게 하회한 결과
 - 또한 지난 5개월 연속으로 '0' 을 하회하고, 그 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확대
- 항목별로는 고용지수가 -9.68, 신규 주문은 -3.70을 기록
 - 고용지수는 전월의 -14.61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신규주문은 전월의 3.08 대비 크게 위축
 - 한편 6개월 후 경기여건지수 12.88에서 18.66으로, 제품가격지수도 14.61에서 16.13으로 각각 개선
- 전문가들은 금번 결과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지난 10월, 11월 제조업 매출은 각각 7%, 5% 감소한 바 있음

2) WSJ, 내년 미국 경제 회복되지만 약한 성장 전망

- 지난 12월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중 미국 경제가 지금 모습보다 더 정상 수준을 되찾겠지만, 강하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내년 중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건설 활동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7년 고점 수준까지 반등하지 못했고 대부분 경제지표도 부진하다고 지적
 - 또한 지난 2009년 6월 경기후퇴는 종료되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주택시장은 침체돼 있어 다시 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향방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재정절벽을 지목
 - 버냉키 연준(FRB) 의장,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미국이 경기후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음

3)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내년 미국 경제 2.1% 전망

- 지난 12월17일(현지시간) 전미기업경제협회(NABE)는 내년 미국 경제가 소비지출 둔화와 취약한 기업투자로 인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NABE는 2013년 경제 성장률이 평균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
 - 비거주 주택 및 설비, 소프트웨어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예상하는 한편, 기업수익과 산업생산에선 증가세 둔화세를 예상
- 한편, NABE는 주거용 건설 경기 개선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해외 경제 동향

1) 모건스탠리,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적

- 모건스탠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이 시작,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
 -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부진한 양상을 나타낸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상저하고)
-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 발생시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내년초 재정절벽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 전망
 - 재정절벽 협상타결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투자와 고용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최근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가 민간 주택담보대출시장 부재 및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여력 감소 등에 따라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

o 한편, 모건스탠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반등, 농작물 공급우려에 따른 가격상승,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조치 등으로 내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

- 연준(FRB)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프로그램 시행, 일본 BoJ의 디플레이션 탈피 및 엔화강세 억제 등을 위한 양적완화조치 (ESM/EFSF 채권 매입 등)가 강화될 전망

- 영국의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이 2%를 크게 상회할 것이나 물가상승률 억제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2) EU-싱가포르 FTA 타결, 영국 금융업 진출 기대

o 지난 12월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 존 클랜시 EU 통상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싱가포르 통상장관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EU와 싱가포르 간 FTA 협상을 결론지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

o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싱가포르의 금융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유럽 자동차 산업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금융 강대국인 영국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영국은 FTA를 통해 보험, 은행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싱가포르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EU와 싱가포르 간 FTA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EU 집행부와 회원국, 유럽의회가 서명하고 비준하면 FTA가 정식 발효될 예정

□ 산업·시장 동향

1) 인도계 IT 아웃소싱 기업들, 미국 시장 공략

- 지난 12월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계 IT·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아웃소싱 계약 건을 따내면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보도
 - 인도 IT 무역협회 나스콤은 금년들어 인도 IT 아웃소싱 부문 매출이 1천 억 달러를 기록, 이들 대부분 수익은 금융업과 의료업에서 발생했지만 향후 정부와 관련된 수주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정부 관련 IT 아웃소싱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가 점차 증가하면서 해당 보안과 관련된 IT 아웃소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美소매 유통기업들, 트위터를 통한 마케팅 전략 강화

- 지난 12월16일(현지시간) 트위터가 미국 소매업체의 마케팅 전략에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
 - 최근 미국 소비가전업체 베스트바이는 최근 홀리데이 시즌에 트위터를 적극 활용, 전년에는 트위터 광고를 구매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8주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소비자 공략에 나선바 있음
 - 주요 소매업체들이 지난 1~11월중 구매한 트위터 광고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 한편 트위터에서 소매업체들로부터 직접 얻은 광고 매출은 전년대비 2배 많은 2억8,8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WSJ는 일부 소매업체들은 여전히 트위터 활용법이나 마케팅이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